내년 코스피 "1800 vs 2200"

약세론 "통화정책 종료·환율 하락이 부정적"

강세론 "美 고용·기업출하 증가로 상승무드"

내년 주식시장에 대한 증권사들의 전망이 코스피지수를 기준으로 '올해 수준'과 '2,000을 뛰어넘는 강세'로 극명하게 갈렸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완만한 경기 회복이라는 기본적 시각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상장기업 영업실적 확장의 둔화나 우리나라 등 주요국가의 금리 인상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지수 전망의 차이를 야기했다고 풀이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은 최근 실시한 리서치포럼을 통해 내년의 코스피지수 예상 범위를 1,500~1,800으로 제시했다.

현대증권은 선진국의 소비 회복 등을 통해 자생적 경기 회복 역량이 조성되고 국내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이 기술력과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단계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양적 완화를 기조로 하는 통화 정책의 종료와 낮아지는 원·달러 환율이 비용 증가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B투자증권은 내년 상반기에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겠지만 하반기에는 2011년의 회복에 대한 기대 때문에 증시 또한 되살아날 전망이라며 예상 지수범위를 1,400~1,800으로 설정했다.

내년 초에 있을 일시적 경기 둔화는 같은해 2~3분기에 주식시장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단행 이전까지 시장에 반영되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증시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게 KB투자증권의 분석이다.

이들 증권사의 시각과는 달리 토러스투자증권은 내년 1분기 후반부터 2분기까지 시장이 조정을 겪은 뒤 3분기부터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1,500~2,100의 지수 범위를 제안했다.

이 증권사는 내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고용 증가와 기업의 출하 증가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나타나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 토러스투자증권의 내년 증시에 대한 개략적 시각은 '전약후강'으로 같지만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환율 하락이나 금리 인상 같은 부정적 변수의 영향력을 비교적 크게 가정한 데 비해 토러스는 회복 가능성 쪽에 무게를 둔 것이 특징이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은 기업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도 확대될 전망이어서 내년에 지수가 2,045~2,2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금리인상과 전세계적인 수요 회복의 미비, 환율 하락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수익성 악화 같은 부정적 요인도 있다며 지수가 1,571~1,703 범위에서 머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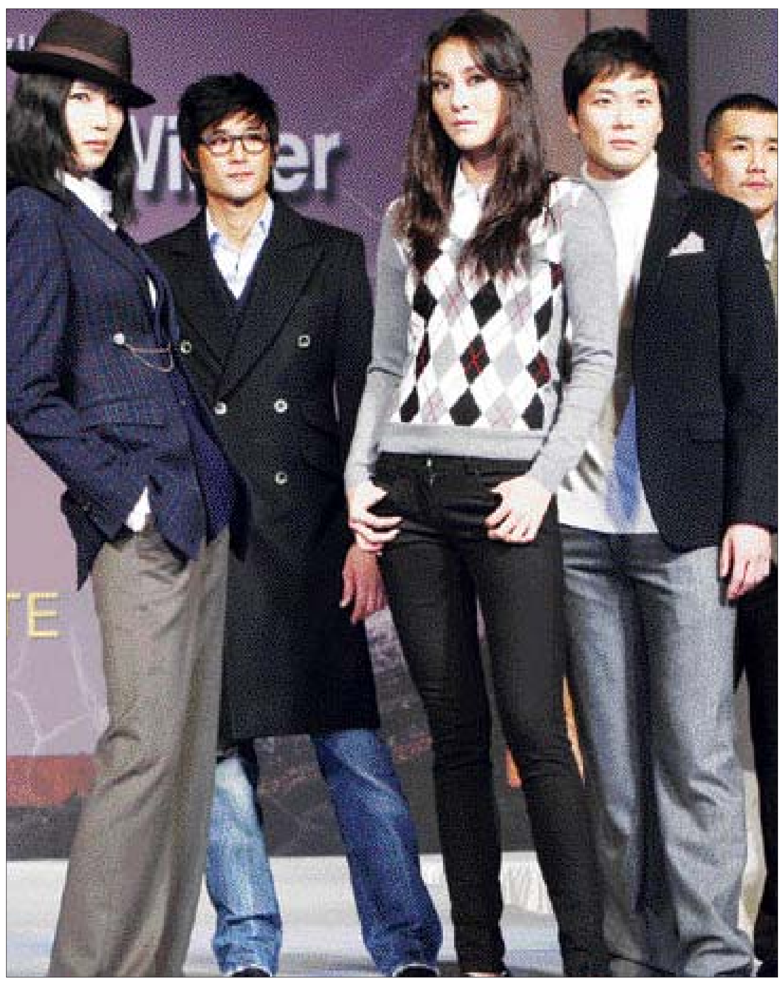
내년 시장금리 4.7% 안팎될 듯

금융연 "경기회복 고려 내년 1분기 인상"

내년에 국내 시장금리는 평균 4.7% 내외로 지금보다 소폭 상승하고, 전반적인 금리인상 기조는 다른 나라보다 소폭 이른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이후에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규복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2010년 금리전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상당부분 선반영된 데다,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되는 효과를 고려하면 내년 평균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 4.7%로 올해 하반기보다 소폭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주요국의 금리인상은 내년 중반 이후에 점진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금리인상이 완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주요국 금리전망 평균치를 보면 대다수 주요국은 내년 2분기 이후 인상 기조로 전환할 것이며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경기회복 등을 고려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1분기 이후 인상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올 겨울 남자의 멋 1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롯데백화점 주최로 열린 2009년 남성복 겨울패션쇼에서 모델들이 보온성이 뛰어나면서 날씬한 겨울 남성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소득 수준별 맞춤 임대아파트 공급

LH 광주·전남본부 지역 최초… 18~19일 접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최초로 소득수준별로 조건을 차등화한 임대아파트를 공급한다.

LH 광주전남본부는 "2010년 9월 입주예정인 장성군 장성읍 영천2 국민임대 456가구(36㎡형 314가구, 46㎡형 142가구)에 대해 18~19일 이틀간 임대접수를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임대조건은 광주·전남 최초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별을 뒀다. 수급자(차상위 포함) 가구의 경우 36㎡형이 보증금 650만원에 월 임대료 5만3천원, 46㎡형이 보증금 1천100만원에 월 임대료 8만7천원이다.

일반가구는 36㎡형이 보증금 800만원에 월 임대료 6만3천원, 46㎡형이 보증금 1천3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4천원으로 시중 시세보다 저렴, 무주택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자격은 가구원수(3인 이하~6인 이상)에 따라 월 평균 소득이 272만6천원~363만1천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5천만원 이상 토지나 2천200만원 이상 승용차 보유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 가구 등의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36㎡형만 신청이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19일까지 운영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박스권 장세 반등 쉽지 않아

낙폭 과대주 단기 접근 유리

금주에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15~18일)을 계기로 위안화 절상 문제가 화두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장에 위안화 절상 등의 가시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금융위기를 통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중국의 헤게모니가 한 단계 격상됐고,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이해득실을 철저하게 따질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상황을 십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 증시의 지지부진한 흐름은 지난주에도 계속돼 코스피지수는 주간 기준으로 5주 연속 하락했다. 다만 낙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 보다는 극도로 침체된 거래와 제한적인 범위에서의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장되어가는 모습이다. 모멘텀·매수주체·주도주 부재 등 3不 장세가 사실상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 주요 해외증시들이 대부분 5%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한국과 일본 증시만이 가장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유독 이들 두 증시만이 차별적인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유를 단순화해서 설명하기는 어렵겠지만, 한국과 일본이 모두 수출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화 및 엔화 등 자국통화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요인으로 꼽을 수 있겠다. 물론 추세적인 달러화의 약세흐름 속에서 대부분의 통화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지만 절상폭이나 민감도에 있어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환율 움직임은 금주에도 지켜보아야 할 변수다.

결국 국내 증시에서는 원화강세→수출기업 실적둔화 우려→더블딥 우려감 확산→모멘텀 실종→주도주 실종의 악순환 고리가 계속되고 있고, 최근 목격되고 있는 연중 최저수준의 거래규모는 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하겠다. 3不장세에서의 모멘텀과 매수주체, 주도주는 같은 연결고리로 묶여있는 변수들인 만큼 현재의 악순환 고리가 깨지지 않는 한 증시의 뚜렷한 반등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당분간 시장의 흐름은 지난주와 같이 제한적 범위에서의 기술적 수준에 그치는 등락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좁은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는 대응이 바람직해 보이며, 업종별 대응보다는 낙폭과대주를 중심으로 단기 기술적 매매의 접근이 유리해 보인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